

지상법석 — ‘참사람결사 대법회’ 서응스님 법어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②

用功到這地步 要具金剛眼睛 不再提
 용공도저지보 요구금강안정 부재제
 提就是頭上安頭
 제취시두상안두
 昔有僧問趙州老人道 一物不將來如何
 석유승문조주노인도 일물부장래시어하
 州曰放下來 僧曰一物不將來放下箇甚麼
 주일방하래 승일물부장래방하개심아
 州曰放不下如何記去 就是頭上安頭
 주일방불하도기거 취시설저시절

이방설조고화두
 就是教誨誦時時刻刻單單的的一念回光
 취시교이시시각각단단적적 일념회광
 迴照 這「不生不滅」
 반조 저 불생불멸
 (話頭)反觀自性 也是教誨 時時刻刻
 화두 반문문자성 아시교이 시시각각
 單單的的
 단단적적
 一念反觀自性
 일념반문문자성
 「回」就是反「不生不滅」就是自性
 회 취시반 불생불멸 취시자성

공부가 이런 경지에 다달으면 금강같은 눈동자를 갖춰야 하나니 다시 화두를 들고 비취본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때에) 화두를 다시 든다면 이는 머리 위에 머리를 얹는 것과 같다.
 예전에 어떤 종이 조주노인에게 한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나가 하고 물었다.
 조주스님 알. 놓아버려라했다. 그 종이 다시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습니까 하였다.
 조주 알 놓지 않으려거든 들고 가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때의 시절소식이다.

어떤 이는 물기를, ‘관세음보살의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째서 참선이 되겠는가’ 한다.
 이제 내가 ‘돌이켜 화두를 비취다’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것은 그대에게 언제나 혹은 뚜렷하여 한 생각 돌이켜 비추는 게 지나지도 멀하지도 않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화두 반문문자성(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도 그대에게 언제나 혹은 뚜렷하여 한 생각 돌이켜 듣는 자성을 듣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돌린다는 것은 곧 비취거나 들음을

此中風光 如人飲水 冷暖自知
 차중풍광 여인음수 냉난자지

“화두를 비추고 돌이켜 자성 듣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게 아니다”

不是說可能到
 불시언설가능도
 到這地步的人 自然明白
 도저지보적인 자연명일
 未到這地步的人 說也沒有
 미도저지보적인 설아불음
 所謂 路途艱客須臾刻 不是詩人不識詩
 소위 로봉겸객수정겸 불시시인불현시

반대로 돌린다는 것이요 나지도 멀하지도 않은은 곧 자성을 이르는 것이다.
 「聞」和「照」 雖俱而時時懸絕
 문 화 조 수순류시순성축색
 聽不越於聲 見不越於色 分別顯
 청불일어성 견불초어색 분별현
 然巨逆而時時反觀自性 不去不離
 연단역류시반관자성 불거순성축색
 則原是一精明 「聞」和「照」沒有兩場
 직원시일정명 문 화 조 몰유양양

이 때의 경계는 마치 물을 마셔본 자만이 찬지 더운지를 아는 것과 같아서 말로써 이를 수 있는게 아니다.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설명치 않아도 절로 명백할 것이요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설명이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이를 일러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모를지기 검을 내놓고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바치기 달라고 하는 것이다.

들음과 비취가 흐름을 따를 때는(밖으로) 소리를 좇고 빛을 뒤따르게 되어 듣는 것이 소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보는게 형상을 초월하지 못해 분별이 뚜렷하다.
 그러나 (안으로) 거스를 때는 돌이켜 자성을 관해 소리나 빛을 뒤쫓지 않으니

或問 觀世音菩薩的 反觀自性 怎見
 혹은 관세음보살적 반문문자성 증견
 得是參禪
 득시참선
 我方說得頭頭
 龍眼

본래는 한가닥 밝은 비취만 있어 들음과 비취법이 두 모습이 아닌 것이다.

“인간주의 초월한 참사람주의는 현대문명 병근 치유하고 새역사 창조하는 열쇠입니다”

백양사 고불총림 운문선원이 주최한 ‘참사람 결사 대법회’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돌교방송 3층대법당에서 동행했다. 사흘간 연인원 2천여명이 동참, ‘참사람결사문’을 채택하고 참사람의 삶을 서원한 이 법회에서는 고불총림 방장 서응스님이 상담법어를 했다. ‘참사람 결사문’과 ‘임제록’을 내용으로 한 서응스님의 법어를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註)

어느 문명이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철학이 있게 마련인데 서양 과학문명도 그를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과학문명에 기초적 원리를 제공해 준 철학자는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기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의심하는

서응스님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 1912년 10월 생
- 32년 양정고등보통학교졸업
- 백양사서 만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35년 중앙불교전문학교졸업
- 41년 일본 임제대학교졸업
- 74년 조계종 제5대 총정에 추대
- 무문관 통회사 백양사 통암사 선원 조실 역임
- 저서 <선과 현대문명> <절대현재의 참사람> <임제록 연의> 등.



“현대인은 과학문명이라는 바람에 휩쓸려가는 낙엽입니다 잃어버린 주체성 회복의 길이 불교의 선법문에 있습니다”

자기, 즉 사유하는 자기는 인식 중에서 최초이면서 가장 확실한 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기를 데카르트는 정신 의식 이성 오성(悟性)으로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정신과 연장하는 물질만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실체라 인식했습니다.
 또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세계이성이 아니라 맹목적 의지’라 했습니다. 이 맹목적의지는 칸트가 말하는 이성적 의지가 아니라 생존하려는 욕망, 즉 자기생명을 후세에 존속시키려는 욕망이나 식욕이나 성욕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19세기말 포이에르 바하는 플라톤에서

있는 비극적 종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병근을 치유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주의를 초월한 참사람주의입니다.
 오늘의 법회는 참사람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서원을 세우고 그 실천의 마음을 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욕망을 초월한 자유자재의 근본 자리, 영원 불변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자기화 시키는 진리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는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물질과 욕망의 세계는 멸망의 종착역으로 가는 기차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관이 없는 과학문명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인류는 더이상 문명의 노예로 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파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과학문명으로 인해 사람은 잘 살게 됐지만 사는 모습은 복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저마다 그 복잡함에 고달려 정신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모습도 기계적입니다. 그러나 보니 자기는 인식도 없고 자기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 보려는 의심조차도 없습니다.
 인류가 다시 야수적인 본능생활로 복귀한다면 어떤적인 투쟁의 결과로 초래될 수

떠도는 어린넛들을 위한 태아령 천도 백일기도 안내

태안지장(泰安地藏)보살을 봉안하고 태아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태아영가의 천도를 위한 제6차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태아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태아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인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범종각 복원불사와 태아영가의 천도를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기도에 여러분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 1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 2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 3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소책자(태아령 천도공양법)
 - 4 염불신앙의 길잡이(정토신행집)
 - 5 백일기도 자료집(부처님께 가는 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아 래 -
- ▶ 일 시 : 1996년 11월 25일 오전 10시(임제) ~1997년 2월 22일(회향)
 - ▶ 동참회비 : 기도금(5만원) 영가 위패 1인당 (5천원)
 - ▶ 온 라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석현정)
 - ▶ 연 락 처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 전 화 : (0694)52-1755 · 팩스(0694)53-0009

1박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수련회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불자의 정토신앙과 임종공부를 위해 “죽기 위한 가르침”이란 주제로 아래와 같이 1박2일의 단기수련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업을 맑히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대원사 주말 수련회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 ▷ 일 시 : 매주 토요일 5시-일요일 2시 (10명 이상 단체 환영)
 - ▷ 수련내용 : 정토수행법, 염불명상법, 선체조, 자비관, 관정기도, 육근참회, 항공(香功)등
 - ▷ 수련지도 : 현장스님
 - ▷ 회비없음
 - ▷ 교 통 편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 타고(사평종점)하차, 대원사까지 택시(혹은 군내버스)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
 주지 석현장 합장